

국가 해양위기 대응전략에 관한 고찰

이춘재*

* 해양경찰청 前職

A study on Strategy for National Oceanic Crisis

Lee Choonjae*

* ex Korea Coast Guard

핵심용어 : 해양위기, 해양경찰, 검은 백조, 세월호, 해양사고

Key Words : Oceanic Crisis, Coast Guard, Black Swan, Sewol, Marine accidents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고처럼 전쟁이 아니면서도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멈추게 할만큼 심각한 우발적 해양위기(海難)에 대한 대응전략을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해석한 ‘검은 백조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변국들이 해양위기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이행하고 있는 여러 해양 정책과 주요 이슈들을 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해양위기 대응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2. 블랙 스완 (Black Swan) 이론

- (1) 없을 줄만 알았던 검은 백조(白鳥)의 역설
- (2) 위기관리 측면에 있어 블랙 스완 이론이 가지는 시사점
모르는 것, 알아내기 어려운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성공적으로 예방한 위기는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칭찬받기도 어렵다. 블랙 스완의 속성상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므로 대비에 더 집중하라.

3. 해양위기의 불확실성

- (1) 역사 속의 검은 백조형 해양사고
- (2) 신해양질서의 재편과 해양관할권 분쟁 속의 불확실성

4. 주변국의 국가 해양전략과 해양치안력

- (1) 뒤늦게 바다에 올린 중국 해양경찰국
- (2) 사면초가의 해상 최전선, 일본 해상보안청

5. 국가 해양위기 대응전략 개선 방안

- (1) ‘스위스 치즈 모델’을 통한 해양위기의 ‘블랙 스완’ 탐지 시스템 구축
해양위기에 있어 블랙 스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방

어장벽별 결함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으나, 설령 특정 방어장벽에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그 결함이 사고로, 위기상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고리를 끊고 치즈 구멍이 일렬로 정렬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 블랙 스완 탐지를 위한 해양경찰의 대응역량 강화
극단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가 위기로 전락되지 않도록, 앞 단계의 구멍난 스위스 치즈를 통과한 잘못된 先조치를 극복할 수 있을만큼 구조 역량과 치안 역량을 배가시켜야 하고, 응급상황, 급박한 위기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3) 국가 해양위기 대응체계 정비
가. 해양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일원화
재난관리에 있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가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양재난에 대한 주관기관부터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이다.

나. 해양위기 대응을 위한 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개선
재난대응 참여기관간에 사전에 기관별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고, 명령과 정보의 전달체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현장대응부서에서 사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새롭게 출범한 해양경찰은 해양안전을 비롯한 해상범죄, 해상보안, 해양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고가 재앙·참사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관의 각 단계별 방어체계 속의 ‘블랙 스완’을 3차원적 관점에서 색출해내 피드백을 시키고 경고신호를 주어 사전 대비의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